

# 한화석유화학, 5일만에 반등 성공

3월21일 2시 1만2500원으로 4.15% 상승 ... 가성소다 시장호조 반영?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화석유화학이 4%대의 비교적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5일만에 반등했다.

3월21일 오후 2시 현재 한화석유화학 주식은 지난주 말에 비해 4.15% 오른 1만2500원을 기록했다.

매수상위 창구는 메릴린치증권이 1위에 올라있어 그동안 외국인들의 차익실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화석유화학 주가는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공세에 나서자 3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 연속 내림세를 타면서 1만4200원에서 1만2050원으로 15% 급락한 바 있다.

대신경제연구소 안상희 책임연구원은 “주가 1만2000원선이 기술적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성소다 부문의 시장호조에 따라 1/4분기 영업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안상희 책임연구원은 “가성소다 부문의 호조에 따라 1/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1.9%, 전분기대비 2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만75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 PVC 생산량 증가로 연말에 중국의 순수출국 전환 우려에 따라 한화석유화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중국이 투자위축과 공법상 문제 등에 따라 순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전했다.

현대증권 박대용 애널리스트도 한화석유화학의 최근 주가조정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매수> 투자 의견과 적정주가 2만원을 유지했다.

<화학저널 2005/03/22>